

중동국들이 주도권 쥔 'OCA 결정'이 관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자카르타AG 단일팀을 위한 과제들

7개 종목 단체 '단일팀'에 긍정적 의견 선수들 불이익 최소화·외교력도 중요 북한 여자축구 강해 가능성 높은 종목 병역문제 걸린 남자축구 '민감한 숙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한과 북한은 국제 종합대회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으로 참가했다. 결정부터 대회까지 매우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여러 논란도 뒤따랐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적극적인 지원, 단일팀을 통해 '평화 올림픽'을 강조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됐고 남북협력에 큰 물꼬를 댔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양 정상은 함께 발표한 '판문점선언'에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자'고 뜻을 함께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 개막해 9월 2일까지 열린다. 평창겨울올림픽과 비교해 물리적 준비 시간은 더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대회 개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협약을 상징하는 단일팀이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여러 난제도 존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지적됐던 여러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각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단일팀에 대한 견해를 조사했다. 총 40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중 탁구, 농구, 유도, 정구, 하키, 카누, 조정 등 7개 종목단체로부터 긍정적인 의향을 확인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명시된 남북체육교류의 첫 무대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 의지와는 별개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들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현실화가 어렵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 여자단체전에서 우승한 남북단일팀(왼쪽부터 홍차우, 유순복, 현정화, 리분희). 스포츠동아DB

가장 큰 관건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결정이다. OCA는 미국과 유럽 서방국가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는 색깔이 다르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경제 강국들의 영향력이 높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지만 중동 국가들의 실력행사로 1962자카르타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지 못했고 이후 복귀했지만 1974년 테헤란 대회를 끝으로 아시안게임 무대를 밟지 못했다. OCA는 한 발 더 나아가 1981년 이스라엘을 제명했다. OCA는 그동안 남북 단일팀에도 IOC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990베이징대회도 남북 단일팀이 추진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OCA의 엔트리 확대 승인, 일본 등 아시아스�포츠 강국의 동의를 있어야 남북단일팀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체육 외교력'이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엔트리 확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부 국가대표선수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기훈 대한체육회 회장은 정상회담 직후 "남북 단일팀은 사회통합, 남북 동질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환영하며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 문체부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종목에서 단일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력에 강한 여자축구는 단일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단 그만큼 OCA회원

국들의 동의를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단일팀 구성으로 전력에 더 강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요 참가국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남자축구는 상징성이 매우 크지만 선수선발, 조직력 등에서 난제가 많다. 남자종목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병역특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 체육단체와 선수 입장에서는 더더욱 민감하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함께 출전한 원초 단일팀 탁구도 유력 종목이다. 북한에서 최고 인기 종목 중 하나인 농구도 가능성이 있다. 단 엔트리 확대 혜택이 없다면 대표팀 선발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메달집계도 어떤 국가로 해야 할 것인지 등 앞으로 OCA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내가 왜 떴게?

만찬장의 훈훈한 풍경들



현송필과 윤도현

●윤도현 현송필 : 윤도현이 자신의 SNS에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의 분위기를 담은 사진들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필, 현송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마치 오랜 시간 만난 지인들처럼 편안함이 느껴진다. 조용필의 왼손이 자연스럽게 현송필의 왼쪽 어깨를 잡고 있는 모습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옥류관 평양방면 사진을 올린 윤도현은 "이거 먹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불렀다"고 적기도, 윤도현이 올린 사진의 백미는 현송필 단장과의 인중샷. 사진 속에서 현단장은 미소와 함께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마치 연예계 선후배 인증샷처럼 훈훈해 보인다. 윤도현은 예능프로그램 촬영차 불가리아에 머물던 중 정상회담 만찬 참석을 위해 급거 귀국했다는 후문이다. 윤도현씨, 수고하셨습니다. '열일'해준 카메라에게도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평양방면, 아직도 안 드셨습니까?

●평양방면 :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방면을 언급하고, 만찬메뉴로 북한 옥류관의 평양방면이 등장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이 뜻하지 않은 특수를 누렸다. 울지면울, 필들면울, 울밭대 등 '전국구 평양맛집'들은 방면을 맛보기 위해 입맛을 다시는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해외언론들도 앞다퉈 "What is 평양방면?" 하며 크게 보도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온 종일 "드디어 나도 먹었다"는 방면 인증샷으로 도배가 됐다. 연예인 스타들의 SNS도 예외가 아니었다. 1971년 '평풍외교'에 이어 2018년은 '방면외교'의 해로 기억될 듯. 올 가을엔 '김치찌개'나 '갈비찜'은 어떠실지.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Dreams Come True haja1787@donga.com

조용필·최진희·윤도현... 남북 문화교류, 스타들이 앞장선다

정상회담 만찬장 수놓은 대중음악 공연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때도 성사 될 듯 평양공연 스타들 교류의 중심 역할 기대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직후 나온 '판문점 선언'은 이렇게 규정했다. 이어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 폭넓은 문화적 교류가 일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그 중심에 스타들이 있다.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윤도현밴드), 서현, 레드벨벳 등 이달 초 평양에서 공연한 이들이 선두에 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이들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상당한 기세를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더욱 많은 스타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봄이 온다' 이어 '가을이 왔다'까지?

스타들은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봄이 온다' 공연을 펼쳤다. 북측에 익히 알려진 우리 노래를 들려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이달 3일 평양에서 남측 예술단과 삼지연관현악단은 합동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7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간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월1일 평양에서 열린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 리허설 모습. 평양공연 공동취재단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는 '비림이 불어오는 곳' 등 우리 대중음악이 공연됐고, 만찬 직후 현송필 공연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레를 꿈꾸며'가 흐르기도 했다.

스타들이 이끈 이 같은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봄이 온다'에 빛나 '가을엔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가을 평양 방문 계획을 밝힘으로써 또 다른 무대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있다. 또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선언을 내놓은 6월15일을 비롯해 8·15 등 양측에 "의의가 있는 날들"에 펼칠 "민족공동행사"에 대중친화적인 음악 등 공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필·윤도현·최진희·서현... 스타들이 나선다

향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스타들로는 조용필을 비롯해 '봄이 온다' 공연에 나선 이들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조용

필과 윤도현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도 참석해 북측 현송필 삼지연관현악단 등과 화음을 맞췄다. 이들은 이미 이달 초 평양 공연을 마친 뒤 현지 만찬에서도 '겨울의 찾침' 등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두 차례 평양 공연을 진행한 가수 서현은 이미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한 남측 인사들이 이미 북측에 익숙한 이들이라는 점은 향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평양 공연의 레퍼토리가 북측에 잘 알려진 우리 대중음악이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정서와 감성에 다가가는 문화의 힘과 서로 닮아있는 이들로부터 출발해 또 다른 영역으로 교류의 폭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줄 스타들의 활약이 중요한 가늠자라고 연예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서로에게 닮아있는 문화적 바탕 위에서 합력은 정치적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던 과정에 비추 보면, 앞으로 우리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스타들의 활약에 더욱 기대를 걸게 한다"고 말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평북 나눔 www.nalotto.com

든든한 보금자리, 복권기금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눔 Lotto

804회 당첨번호 (추첨일: 2018년 4월 28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 10 13 26 32 36	9
1등 총 당첨금	17,951,916,961,753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50%입니다. 2등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개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1	1,631,996,523 원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49	61,061,095 원
3등 5개 숫자 일치	2,048	1,460,935 원
4등 4개 숫자 일치	100,907	5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1,659,443	5,000 원

※1등 당첨금은 1억원당 1명당 1명입니다. 내역 공백 칸

나눔로또 홈페이지: 지역번호 1589-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nalotto.com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계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